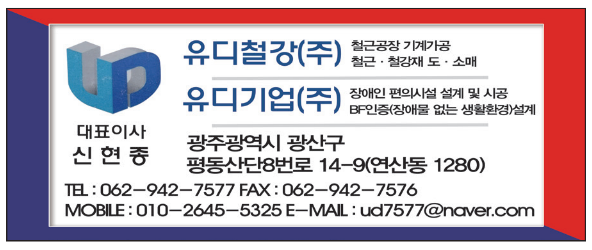
광전매일신문



대표전화 062-525-9775 gjnews.kr FAX : 062-528-4566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0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으로 여는 산업 비전설명회'에서 산업·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전남 통합으로 '산업 대전환' 본격 설계

광주테크노파크서 통합특별시 산업비전 설명회… 150여명 참석
뿌리산업 복원·미래신산업 육성·인재 양성 등 산업 로드맵 제시
강기정 시장 "통합은 생존전략… 수도권과 경쟁 초광역산업 구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으로 여는 산업 비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산업 발전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산업계와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가시화됨에 따라 통합 이후를 대비한 산업 구조 재편 방향과 초광역 경제권 구축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는 광주·전남지역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통합 추진경과 및 배경, 행정통합에 따른 7대 산업벨트 및 권역 기반의 8대 산업 대전환 계획, 신산업 육성 전략 등이 발표됐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광주시는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산업 지형을 재편하는 구조적 전환으로 규정하고, '광주특별시(약칭)' 출범을 전제로 신경제특별시 도약 및 산업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힘쓴다. 구체적으로 ▲가전,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광주전남 뿌리산업 복원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인재 양성 ▲광역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60분 광역교통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도농복합 특별시 균형발전 등이다.

광주시의 인공지능(AI), 미래차, 반도체, 헬스케어 등 첨단 제조·기술 산업 역량과 전남도의 에너지, 바이오, 우주·항공, 해양·농생명 산업 자원을 결합해 '첨단기술-에너지-제조'가 융합된 초광역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연구개발(R&D) 기반시설 공동 활용, 산업단지 공동 기획, 기업지원기관 기능 연계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7월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며 "광주전남 통합은 신경제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산업을 지킴과 동시에 첨단산업을 키워 광주전남의 산업 구조를 새 판이 짜여질 것이다. 인서울이 아닌 인광주, 인전남 광주의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극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12년간 고비를 넘어 '최다' 신화 창조한 최민정

동·하계 통틀어 한국인 최다 메달 신기록

2026 동계올림픽

이제 '전설'이라는 말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다.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성남시청)이 역사를 바꿔놓으며 신화의 반열에 올랐다.

최민정은 21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32초450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최민정은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을 수집하며 대회 멀티 메달에 성공했다.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1500m에서 연달아 우승한 최민정은 이 종목 3연패까진 닿지 못했지만, 새 역사를 써냈다.

이번 대회 1500m 준우승으로 최민정의 개인 통산 올림픽 메달 수는 금 4개, 은 3개가 됐다.

총 7개의 메달을 목에 건 최민정은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한국인 최다 메달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계올림픽의 진종오(사격·금4 은2)와 김수녕(양궁·금4 은1 동1), 동계올림픽의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금2 은3 동1)이 보유하고 있던 메달 합계 6개의 기록을 넘어섰다.

최민정은 각 종목의 전설로 일컬어지는 진종오, 김수녕, 이승훈 등을 모두 뛰어넘으면서 신화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4년 처음 태극마크를 단 최민정이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며 10년 넘게 태극마크를 지켜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업적이다.

주니어 시절부터 한국 쇼트트랙을 이끌어갈 대형 유망주로 주목받은 최민정은 16세에 대표팀에 합류한 직후부터 에이스로 우뚝 섰다.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강자로 이름을 떨쳤다.

첫 올림픽이었던 2018년 평창 대회에서는 1500m 금메달, 계주 금메달로 2관왕에 오르며 '여제 대관식'을 치렀다.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세계 최강자의 면모를 이어간 최민정은 4년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1500m 2연패를 달성했다. 여자 1000m, 계주에서도 모두 은메달을 땄다.〈2면에 계속〉 /뉴시스